

1960년대 한국에서의 “근대화론” 수용과 한국사 인식*

— 고려대와 동국대 학술회의를 중심으로

안 증 철**

[초 록]

1960년대 한국에서 수용된 “근대화론”은 크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로 나뉘어볼 수 있다. “근대화론”은 각 사회가 처한 현실과 별개로 근대사회로의 도약이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추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 이론은 상당한 주목을 끌었

* 이 논문은 2016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초안은 2017년 4월 20-23일에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유럽한국학 회의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에서 발표되었다. 함께 패널로 참여해서 날카로운 비평을 해주신 신주백(연세대 국학연구원), 김정인(춘천교대), 홍종욱(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그리고 마리-오랑쥐(Marie-Orange Rivé-Lasan, 파리 7대학) 교수들께 감사드린다.

** 독일 튀빙겐대학교 중국 및 한국학과 주니어교수

주제어: 근대화론, 고려대회의, 동국대회의, 한국사학, 제3세계, 한국사시대구분론
Modernization Theory, International Conference in Korea University,
Conference in Dongguk University, Korean Historiography, Third World,
Discourses on the Periodization in Korean Historiography

다. 따라서 이 글은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과의 관계를 다룬다. “근대화론”은 한국에서는 고려대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와 동국대 개교 60주년 학술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고려대 회의는 서구사회에서 “근대화론”을 주장하던 학자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 측 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와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이 회의 이후에 한국에서는 한국사시대 구분론의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을 인정하는 위에서,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계기를 한국사의 특정 시점에서 찾고자 한 점에서 “근대화론”의 한국적 맥락화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론”의 수용과 한국사 인식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근대한국사의 특징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1. 머리말

해방 후 1960년대 이후는 “근대화론”이 지배담론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 물질적 “발전”개념을 포함한 직선적 역사관이 풍미했던 시대이다. 1960년대 이후 구미권에서 제기되었던 포스트모던, 포스트식민주의, 환경주의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1990년대에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근대화론”은 한풀 꺾였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발전국가론(development state theory)과 더불어 이 이론은 현실 정치나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근대화론”과 서구의 한국사 인식, 그리고 한국의 수용이라는 과제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현상과 연구를 반추한다는 의미를 넘어서고, 여전히 현실적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근대화론”과 한국사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의 “근대화론”과 지식인들의 관계와 동이론과 제3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¹⁾ 나아가 최근에는

1)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Nils Gilman (2000), *Mandarins of the Future*:

“근대화론,” 특히 대규모 사업발주를 통한 사회개발에 대한 연구도 중시되고 있다.²⁾ 한국에서는 미국의 “근대화론”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근대화론”이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이었기에 사회과학에서의 수용문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다.³⁾ 그리고 한국민족주의 관점에서 “근대화론”과 수용주체로서의 한국지식인 사회에 대한 분석이 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대화론”이 개념과 아시아사회에 대한 이해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당대에도 근대화론에 대한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존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즉 산업화와 기술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 신분과 귀속사회에서 신분평등과 업적 중심 사회로의 이동을 다루는 입장, 그리고 대중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의 향상을 중시하는 주장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⁵⁾

Modernization Theory in Cold War America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3); Michael Latham, *Modernization as Ideology: American Social Science and “Nation Building” in the Kennedy Era*, Durham,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Kimber Charles Pearce (2001), *Rostow, Kennedy, and the Rhetoric of Foreign Aid*,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2) David Ekbladh (2010), *The Great American Mission: Modern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n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 정일준(2005),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미국 근대화론의 한국전파와 한국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7-3; 정일준(2003), 「미 제국의 제3세계 통치와 근대화 이론」, 『경제와 사회』 57은 가장 대표적인 연구이고 사회과학에서의 다양한 평가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 4)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을 참고 홍석률(2002),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 62; 박태균(2004),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 허은(2007), 「1960년대 후반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 주조와 담당 지식인의 인식」, 『史學研究』 86; 황병주(2009),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21.
- 5)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당대부터 다양한 평가가 있어왔는데 이 글 2장에서 전체

또한 “근대화론”은 역사를 보는 관점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미국 내에서는 역사학자들이 이 논쟁에 적극 참여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사에서 근대화론이 어떻게 수용되고 비판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⁶⁾ 특히 근대화론적 발전주의, 일직선적 역사관 등이 현대 한국에서 진행되는 역사학 연구의 한 조류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근대 한국사 연구는 세계사적 보편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비록 탈근대 논의를 통해서 보편적 역사에 대한 믿음이나 일직선적인 역사발전에 대한 연구자들의 신뢰가 약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패러다임은 미래의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한 대안모색이라는 의미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⁷⁾

그런 점에서 한국사에서 “근대화론”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미, 특히 미국과 유럽의 근대화론과 제3세계 인식과 관련된 분석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글은 위의 문제의식 하에서 한국사, 특히 1960년

흐름을 위해서 일부 논할 것이다.

- 6) 예외적인 경우가 냉전시대 중국사 연구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백형서(2014), 「상호소원과 소통의 동아시아-고병익의 역사인식 재구성」, 『사회인문학의 길-제도로서의 학문, 운동으로서의 학문』, 서울: 창비; 또한 해방 후 한국대학의 사학과 체제의 성립과 역사학을 다룬 신주백(2016), 『한국역사학의 기원-근현대 역사학의 제도·주체·인식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서울: 휴머니스트, pp. 319-347. 이들 연구는 근대화론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라이샤위를 통해서 본 “근대화론”과 한국 인식에 대한 주장은 안종철(2013),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위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 『역사문제연구』 29 (2013년 4월), pp. 293-322과 장세진(2013), 「라이샤위의 동아시아론과 전후 한국학의 배치」,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엮음, 『동아시아한국학의 분화와 계보-복수의 한국학들』, 서울: 소명출판 등을 참고.
- 7) 그러한 점에서 최근 발표된 전후 한국사 연구의 인식론적 기초를 다룬 다음의 논문들은 주목된다. 『사학연구』 125 (2017. 3)에 실린 신주백, 「1960년대 ‘근대화론’의 학계 유입과 한국사연구: ‘근대화’를 주제로 내세운 학술기획을 중심으로」; 김정인, 「식민사관 비판론의 등장과 내재적 발전론의 형성」; 홍종욱,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전: 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 등을 참고할 것.

대의 인식과 “근대화론”과의 관계를 다루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1965년 고려대와 1966년 동국대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근대화문제에 대한 학술회의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다.⁸⁾ 특히 전자의 보고서는 당시 구미권에서 활동하는 역사학자들과 정치, 경제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들과 1주일 이상 자리를 함께 하면서 논의한 것이다. 후자는 동국대에서 국내 학자들(이전 해 고려대 학술회의에 참석한 일부 학자들도 포함)이 모여서 한국의 근대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다.

보충적으로 미국에서 1960-80년대까지,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전에 널리 읽혔던 『동양문화사』(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초판은 1960년)의 내용분석도 하게 될 것이다.⁹⁾ 이들 저자들은 각각 중국, 일본, 한국 전문가들로 역사학자들이었다. 이를 통해서 일본 중심의 근대화론과 한국 근대화에 대한 함의를 다룰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화론”에 대한 몇 가지 관점에서의 해석을 다루되, 특히 한국사연구자들이 근대화론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 역사학이 근대화론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특히 위에 언급한 두 회의에 참석한 외국학자들만 아니라 국내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들을 살핌으로써 근대화론이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¹⁰⁾ 이 점에서 해방 후 한국 역사학은 근대화론과

8)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 June 28-July 7, 1965 Report,” Seoul: Korea University; 동국대학교 개교 60주년기념 학술 심포지움 위원회(1967), 『한국근대화의 이념과 방향』, 동국대학교.

9) Fairbank, Reischauer, and Craig (1989),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이 책은 1939년부터 시작된 하버드의 동아시아 입문 강의로부터 출발하는데 1960년 초판 이후에 판을 거듭하고 수정, 증보해서 1989년까지 계속되었고 적어도 2000년대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 관련 교과서였다.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특히 두 개의 학술회의 직후에 본격화된 한국사시대구분론을 다루면서 연관성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후의 한국역사학자들의 저작에 이 두 회의에서 논의된 쟁점들이 한국사 시대구분론을 넘어서 다양한 저작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가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2. 근대화론의 특징과 제3세계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은 원래 19세기 유럽사회의 산업화와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유럽의 발전개념에서 시작했다. 이것이 피식민사회에 적용되면서 보편적인 유럽과 특수한 피식민사회라는 구도에서 본 식민론과도 관련이 깊은 개념이다.¹¹⁾ 가장 큰 특징은 유럽의 보편성이 비유럽사회의 특수성을 대체해나갈 수 있다는 “보편성”에 대한 믿음이 었다.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체제의 전반적인 재설정”을 목표로 하는 “근대화론”이지만 20세기 중반의 미국에서 유럽의 식민주의를 대체해나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을 기초로 하는 “근대화론”이다.¹²⁾

특히 20세기 전반, 1차 대전 후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라는 염세적 경향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 사회학자들은 2차 대전 전후의 테네시 개발기구(Tennessee

10) 두 학회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간단히 언급한 연구들은 있지만, 학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간지에 대해서는 일본의 하코네회의(箱根會議, 1960)에 비해 연구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학회에서 발표된 글의 제목에 대해서는 정일준 (2005), pp. 86-89을 참고.

11) Nils Gilman (2000), pp. 24-28.

12) Nils Gilman (2000), p. 31.

Valley Authority)와 유럽부흥프로그램(European Recovery Program)의 성공을 배경으로 자본주의 발전이 제3세계에 대한 문제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¹³⁾ 특히 유럽적 맥락에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에 이 이론을 제3세계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일치된 견해를 발전시켰다.¹⁴⁾ 흥미로운 것은 이들 “근대화론” 주장자들은 미국 내에서도 엘리트 정치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즉 대중의 예측할 수 없는 감정적 동요와 별개로 과학적이고 객관성을 가진 엘리트들이 정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⁵⁾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주로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것이었는데, 미국은 원래부터 봉건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없고 자유주의 외에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 미국은 “성취지향적(achievement-oriented)”이며 평등주의 가치체제(egalitarian value system)를 가진 “근대사회”라는 것이다.¹⁶⁾ 이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강조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3세계로 미국 모델을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은 충돌하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미국사회의 기반인 엄청난 경제력은 제3세계에 전파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소련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강조했다.¹⁷⁾ 또한 이러한 주장들은 경제발전의 촉진에 더해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지원하는 기반이 되었다.¹⁸⁾

13) Nils Gilman (2000), pp. 36-41.

14) Nils Gilman (2000), pp. 44-45.

15)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알몬드(Gabriel Almond)와 슬레진저(Arthur Schlesinger Jr.), 그리고 한국에도 왔던 파이(Lucyan Pye) 등을 들 수 있다. Nils Gilman (2000), pp. 47-56.

16) Nils Gilman (2000), p. 62.

17) 히감(John Higham)이나 하르츠(Louis Hartz)로 대표되는 역사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합의역사(consensus history)”로 설명되는 데, 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이 아닌 역사의 발전은 합의에 기반하는 것으로 미국사를 보았다. Nils Gilman (2000), pp. 63-64.

18) Nils Gilman (2000), pp. 70-71.

미국지식인 사회에서 제기된 “근대화”에 대한 설명을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적 해석으로 나누어서 간단히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2.1. “근대화”에 대한 경제적 해석

근대화의 의미를 경제적으로 해석하자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산업화일 것이다. 물론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고 농업생산을 포함해서 고도의 성장률을 가진 공업부분의 수반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⁹⁾ 월터 로스토우(Walter Rostow, 1916-2003)로 대변되는 경제학자들은 전통사회에서 도약(take-off)을 위한 선행조건들, 그리고 도약과 사회적 성숙(maturity)으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특히 로스토우의 견해들 중에서 제3세계 학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모든 사회가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새로운 엘리트들의 역할이다. 특히 “사회적이고 심리적 변화를 가진 이들 그룹”이 바로 “도약을 위한 조건들을 창조하는 핵심”이라는 점이다.²⁰⁾ 당연히 박태균이 이미 지적한 대로 이것은 한국의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엘리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²¹⁾

그리고 이러한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론이야말로 말로 사실 가난에 처해있던 제3세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맥락과 관련해서 중요한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90)에게 근대화는 바로 “산업기술의 혁신을 수반한 역사적 변화”였다.²²⁾ 당연히 이는 일본의 학자들과 미국의 근대화론자들 사이에 중요

19)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 로스토우를 들 수 있다. W. W. Rostow (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11.

20) W. W. Rostow (1960), p. 26.

21) 박태균(2004).

22) 라이샤워 저(이광섭 역)(1997), 『일본 근대화론』, 서울: 소화, p. 7. 원래 이 책은

한 논쟁과 관련이 있었다.²³⁾

2.2. “근대화”에 대한 정치적 해석

근대화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메사추세츠 공대(MIT)에서 가르친 정치 학자로서 1965년 고려대 근대화론 학술회의에도 참가했던 파이(Lucian W. Pye, 1921-2008)의 의견을 들 수 있다. 그는 (1) 권력과 능률에 대한 인식, (2) 합리성(rationality)에 대한 감각, (3) 혁신에 대한 감각, (4) 보편적 시민성(universalistic civility)에 대한 감각, 그리고 (5) 대중 참여라는 요소를 들었다.²⁴⁾ 그에게서는 그에 따르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는 개인의 덕성을 함양하는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두고 사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사회의 정치적 합리화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론”의 정치참여에서 대중이 참여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이 모든 사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에 의한 선도성을 우선 시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었다. 특히 파이는 그 누구보다도 제3세계 혹은 저개발국가에서의 “군부의 근대화 잠재력”에 주목한 이였다.²⁵⁾ 특히 그는 1959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군부집단이 “사람들을 전통에 사로잡힌 세계로부터 개인의 걱정을 감소시키는 조건들을 갖춘 근대의 세속화세계”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²⁶⁾ 특히 군부는

1961-65년간에 일본에서 라이샤워가 발표한 글을 모은 것으로 원저는 1965년에 일본에서 『日本近代の新しい見方』(講談社)으로 출판되었다.

23) 특히 하코네에서의 미일간 근대화론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김용덕(1991), 『일본 근대사를 보는 눈』, 서울: 지식산업사, pp. 156-160을 참고.

24) Lucian W. Pye (1966), “Modernization and the Individual Citizen,” in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140-143.

25) Nils Gilman (2000), pp. 186-190.

26) Lucian W. Pye, “Southeast Asia and American Policy,” address to the National War

“일관된 국가정체성(coherent national identity)”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에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 그리고 국가적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연히 이는 정치적 안정성을 갖추는데 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합의를 가진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군부는 파이에게는 “근대화의 효율적인 존재들(effective agents of modernization)”이었다.²⁷⁾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와 정치적 심리(political psychology)라는 관점에서 파이는 1960년대 당대 중국정치의 후진성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정치전통(tradition)의 유산을 강조했다. 그의 이런 학문적 입장은 사실상 1980년대도 지속되었다.²⁸⁾ 보스턴에서 함께 일했던 하버드대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27-2008) 교수는 문명을 강조했는데, 특히 문명간의 소통보다는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파이 교수와 일면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²⁹⁾

2.3. “근대화”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

사회학적 해석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의견은 영미 사회에 막스 베버(Max Weber)의 저작을 번역해서 소개했던 탈콧 파슨스(Talcott Parsons, 1902-1979)를 들 수 있다. 그는 신분과 혈통이 중시되는 귀속주의(ascription)보다는 근대사회의 핵심적 지표는 능력주의(merit-based)를 들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태도(social attitudes)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College, March 6, 1959, CIS working paper no. C/62-1, p. 12. Nils Gilman (2000), p. 187에서 재인용.

27) Nils Gilman (2000), pp. 188-189.

28) Lucian Pye (1988), *The Mandarin and the Cadre: China's Political Culture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29) Samuel P. Huntington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pp. 68-72.

그것이 제도화(institution)되는 것에 주목한다.³⁰⁾ 이는 직업별로 전문화된 개인들이 사회경제적 성취에 기반한 공동이익의 존중사회를 지향하는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다.

파슨스는 하버드대 사회관계학과(Department of Social Relations)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하나의 사회과학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in the social sciences)”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획들을 추진했다. 특히 시카고대의 에드워드 쉴즈(Edward Shils, 1910-1995) 교수와 함께 “전통”과 “근대”라는 특성에 따라 인성, 사회, 문화 즉 사회 전반의 성격을 지수화하는 틀을 제시했다.³¹⁾ 즉 이 틀은 목표지향적으로 모든 사회가 거기에 따르고 싶어하고 따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근대화론”의 사회 이해에 매우 중요했다.

학자들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지만 대체로 위의 몇 가지 분류 방법에 따라 “근대화론”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대화론에 대한 다기한 이념형은 당시 한국 지식인들에게도 잘 알려졌는데, 한국 지식인들은 시민사회로 지향하는 근대화론과 장기간 근대사회를 거친 서구사회를 어떻게 따라 잡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³²⁾

이러한 경제, 사회, 정치적 의미에서의 근대화론을 제3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에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는 이 이론의 아시아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연구자들이 만들어 나갔는데, 특히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90)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에 대한 미국 학계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과 관련이 있었다. 이 이론은 막시즘에 대결하면서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의

30) Talcott Parsons, “Introduction,” in Talcott Parsons ed. (1947), *Max Weber: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31) 이를 “유형변수”로 부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일준(2005), pp. 70-75.

32) 민석홍(1967), 『서구의 근대화 이념과 한국』, 동국대학교 개교 60주년기념 학술 심포지움 위원회 (1967), pp. 3-6.

발전경로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산업발전에 주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역사적 경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역사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두면서(예를 들면 도쿠가와 시기의 봉건제적 전통이 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 다른 지역의 아시아적 후진성/독특성을 규명하고 규범적인 대안을 내놓으려고 했다.³³⁾ 라이샤워는 하버드대에서 한국학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록펠러 재단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1959년, 하버드에서 학위를 막 마친 에드워드 와그너(1924-2001)을 데려오는데 성공했다.³⁴⁾

존 패어뱅크(John King Fairbank, 1907-1991)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로 하버드대에서 라이샤워와 함께 동아시아학을 세우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패어뱅크는 중국의 전통문화가 근대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전통적인 관료제적 전통(bureaucratic tradition)”과 “여러나라들 중 가장 문화에 속박된(the most culture-bound of countries)” 한국도 마찬가지로 근대화의 걸림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³⁵⁾ 그는 1960년대 라이샤워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과 만나서 대화했고, 외부 충격에 의한 중국의 근대화라는 주장을 일찍부터 고수하고 있었다.³⁶⁾

일본사회에 대한 풍부한 실증적 연구와 별개로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33) 라이샤워의 근대화론 이해와 한국관련 문제는 안종철(2013)을 참고할 것.

34) Edwin O. Reischauer (1986),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Tokyo, John Weatherhill, Inc., pp. 147-148.

35) 그는 1964년에 한국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를 방문했고 이듬해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재정지원을 얻어내는데 관여했다. Paul M. Evans (1988), *John Faibank and the American Understadning of Modern China*, New York, Basil Blackwell Inc., pp. 237-238.

36) 패어뱅크의 중국인식에 대해서는 워낙 연구가 많은데 가장 집약적인 설명은 Paul M. Evans (1988), pp. 165-189. 패어뱅크 본인의 직접적인 설명은 John King Fairbank (1983), *Chinabound: A Fifty Year Memoir*, New York: Harpercollins, 특히 pp. 315-330.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2차 대전 후 구미권의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는 전후 일본의 한국관련 연구자의 영문저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⁷⁾ 그런 점에서 “근대화론”은 1960년대 이후에 제3세계에 대한 미국식 발전주의를 초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역사서술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역사적 발전을 염두에 둔 목적론적 서술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질서와 한국 전통사회에 대한 차별한 탐구보다는 부정적인 서술 등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후 서술하겠지만, 이러한 근대화론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서는 시대구분론으로 나타났다.

3. 한국에서의 “근대화론” 수용과 한국사 인식

한국에서의 “근대화론”의 수용과 한국사의 관계는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근대화론”이 경제에서는 공업화 및 산업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정치주체로서의 대중의 성장, 사회적으로는 근대적 제도와 업적주의의 정착 등을 의미한다는데 고려대와 동국대 두 학회의 참여자들이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진행한 1965년의 회의는 미국과 유럽의 학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의 학자들이 참여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학술회의였다. 게다가 이는 1905년에 창립된 고려대 창립 60주년 기념학술회의로 학내 전 조직이 개최에 관여했다고 해도 과언

37) 특히 라이샤워와 페어뱅크가 집필한 East Asia책의 한국부분은 하타다 다카시(旗田 田 龍)(1951), 『朝鮮史』, 東京: 岩波書店(2008년 재간)의 영역본에 많이 의존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책은 Hatada Takashi (Warren W. Smith, Jr. and Benjamin H. Hazard trans)(1969), *A History of Korea*, Santa Barbara, CA: ABC Clio Inc.로 영어권에서 발간되었다. 이에 대한 비평은 안종철(2013), pp. 315-318을 참고.

이 아니다. 그리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1957년 창립되었는데 당시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의 재정지원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이 학회의 개최만 아니라 1962-67년 사이에 70만 불을 지원했다.³⁸⁾ 포드재단은 미국의 제3세계 지원, 특히 근대화 프로젝트와 관련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학술회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학회는 고려대에서 1965년 6월 27일 만찬을 시작으로 다음날부터 7월 3일, 즉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식 발표회가 있었고 그 후 7월 7일까지는 여러 지역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다.³⁹⁾

이 학회를 조직한 아세아문제연구소의 소장 이상은 교수(고려대 중문학)는 당시 연설에서 근대화는 1세기 전에 이미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인식하면서도 아시아가 식민화되거나 반식민화된 조건을 지적하면서 현재 주체적 근대화의 조건 속에서 학회의 의의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다섯 개의 분과를 설치한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근대화”의 이데올로기적 도전 때문에 개념을 다루는 분과를 설치했다고 한 점이다.⁴⁰⁾ 또한 총장 유진오 박사는 고려대의 1905년 설립과 근대화 노력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그리고 사회과학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등, 미국 측 재단과 참석자들의 각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⁴¹⁾ 이는 미국 재단 측의 지원과 고려대의 개교 60주년 기념사업, 그리고 미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근대화론”에 대한 관심들이 이 학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한국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이병도 원장도 이 학회의 현실적 중요성을 개최축하 연설에서 전했다.⁴²⁾ 이 학회는 고려대만의 행사

38) 포드재단과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관계는 정일준(2005), pp. 84-85 참고.

39)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12-18.

40)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29-30.

41)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31-32.

42)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 33.

가 아니라 한국사회, 특히 지식인 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행사로 볼 수 있다. 79명의 (국내 37명, 해외 42명) 학자들이 참여한 큰 국제학술회의는 당시까지 매우 드문 행사였다. 당시 언론도 이 학회를 비상한 관심과 우호적인 태도로 보도했다.⁴³⁾ 그리하여 각 참여자들의 발표 제목과 참여자들의 면모를 자세히 보도했다.

당시 이 학회는 다섯 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다음의 표는 각 분과와 참석자들의 현황을 보여준다.

[표 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제회의 분과와 참석자 현황⁴⁴⁾

분과 이름	참여자	참여자 특징
1. 근대화의 개념적 문제 (Conceptual Problems of Modernization)	안호상, Charsun Chang (C), 조가경, 최명관, 최재희, Ronald Dore (B), 하기락, Yoichi Itagaki (J), 김태길, Lucian W. Pye (US), 이기영, A.B. Shah (I), Chun-I Tang (HK)	철학자, 종교학자, 정치학자 등
2. 동아시아 전통사회와 근대화 (Traditional Asian Society and Modernization)	전해중, Kentaro Hayashi (J), Gregory Henderson (US), William E. Henthorn (US), Marius B. Jansen (US), 고병익, 이광린, 이선근, James W. Morley (US), Sibnarayan Ray (I), 이승훈, Shee Sung (T), George E. Taylor (US), Ping Wang Yao (T)	역사학자 중심
3. 근대화와 정치문제들 (Modernization and Political Problems)	차기벽, Vidya Prakash Dutt (I), 함병춘, Heinrich Herrfahrdt (G), 김하용, 이문영, 이용희, 이호재, Peiwei S. Lui (T), Glenn D. Paige (US), Fred W. Riggs (US), Robert A. Scalapino (US), Bruno Seidel (G), 장재석, Toshio Ueda (J)	정치학자/국제정치학자 중심

43) 『남은 전통의 재검토 및 비판을』, 『경향신문』, 1965년 6월 28일 자.

44) 한국인 참여자의 경우는 한글로 표기했다. 미국인은 US, 일본인은 J, 중국인은 C, 홍콩은 HK, 필리핀은 Ph, 인도는 I, 영국인은 B, 대만인은 T, 독일인은 G로 () 속에 표기.

분과 이름	참여자	참여자 특징
4. 근대화와 경제문제들 (Modernization and Economic Problems)	Han-sheng Chuan (T), 한기준, 홍성유, William R. Hoskins (US), 김병국, Agustin Kintanar (Ph), 이창렬, 남덕우, 백영훈, 서남원, 조기준	경제학, 혹은 경제사학자들 중심
5. 근대화에 있어서 다양한 인구층의 역할	배영광, Stuart C. Dood (US), 홍승직, 황성모, 김경동, 김규환, 이해영, 이만갑, Marion Levy J. Jr. (US), Felix Moos (US), Yuzura Okada (J), Herbert Passin (US), 노창섭	사회학자, 인류학자들 중심
기타 참여자들(Observers)	Frank P. Baldwin (US), Claude A. Buss (US), 정경조, Toichi Miyahara (J), Hubert Reynolds (US), 서두수, Key P. Yang (US)	

* 출처 : Asiatic Research Center 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 June 28-July 7, 1965 Report" (Asia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66), pp. 19-25.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홍콩, 필리핀, 인도, 대만 등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흥미로운 점은 “근대화론”과 직접 관여있었던 인도, 필리핀 등의 학자들도 참여했다는 점인데, 이는 고려대만이 아니라 어쩌면 참여자들에 대한 아시아재단 등의 조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근대화에 대한 분류,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면모를 다루면서 근대화의 주체문제, 그리고 개념문제를 각 분과별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통사회의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적 문제도 상당히 깊게 다루어졌다. 셋째, 당시 미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 정치문제에서 파이(Lucian W. Pye)와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역사학에서의 쟈슨(Marius B. Jansen), 몰리(James W. Morley) 등을 비롯해 한국 측의 철학(김태길), 정치학(차기벽), 역사학(고병익), 경제학(남덕우), 사회학(이만갑) 등에서 주요 학자들이 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 분야에서도 구미에서 활동하는 한국관련 연구자들(헨더슨, 헨슨)

등이 참여해서 한국학자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한편, 이듬해 동국대(총장 조명기)에서 60주년 개교기념행사로 개최된 “한국근대화의 이념과 방향”이라는 학술회의는 국내학자들만의 조출한 회의였지만, 전 해 개최된 고려대 “근대화론” 국제학술회의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이 회의의 분과명은 대체로 앞선 고려대 회의와 비슷했지만, “사회”부분이 없었다. 이는 주로 이념과 전통사상을 다루는 회의의 특성상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⁴⁵⁾

그렇다면 이들 학회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대화론”과 한국역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아래에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한다. 역사학에서 “근대화론”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대응을 찾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이 근대화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유하면서 나름의 이해와 대응, 그리고 전유한 지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1. “봉건제” 존재의 유무

첫째는 서구의 근대화론, 특히 역사발전의 일직선상의 진행을 강조하는데 있어서 특히 봉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행에 관심이 쏠아지면서 “봉건제”의 유무가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했다. 라이샤워의 연구나 일본연구자들이 상정한대로 근대화론에서 일본의 “봉건제”의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했다. 이에 반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봉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점은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도 동일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45) 이 회의의 분과명은 다음과 같다. 1. 서구적 근대화 이념에 대한 비판(민석홍, 황성모, 신일철, 김태길, 오병훈), 2. 한국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전통사상(서남동, 이기영, 정태현, 최석우, 최동희, 이우성, 이상은), 3. 한국근대화를 위한 이념과 방법론상의 제과제(경제)(김준보, 장원중, 주종환, 박희범), 4. 한국근대화를 위한 이념과 방법론상의 제문제(정치)(이정식, 차기벽, 민병기, 정범모). 동국대학교 개교 60주년기념 학술 심포지움 위원회(1967), pp. v-vi.

그런 점과 관련해서 조선시대부터 한국은 서울중심사회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은 현재에도 진행되는 문제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었다. 특히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전통 한국에서 이익 집단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이 집단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들은 탈중앙화한 사회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집중은 이를 저해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정치영역의 비대화 때문에 한국은 다른 영역의 발전이 저해되는데 이는 중앙집중화를 통해서 더욱 악화되는 면이 있다. 그는 정치영역의 “소용돌이”라는 개념을 고안해서 한국의 전근대로부터 1960년대 당시까지를 분석하고 있다. 봉건제의 결여라는 것이 한국의 전통사회의 약점이라는 점과 통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봉건제의 부재라는 주제는 『동양문화사』에서 일본과 더불어 한국 관련 부분을 집필한 라이샤위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였다. 즉 일본은 도쿠가와시대(1603-1868)는 전형적인 봉건제로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⁴⁷⁾ 분권화된 도쿠가와 시대는 각지에서 자본주의의 싹을 보이고 있었던 시기이다. 도쿠가와시대는 메이지시대(1868-1912)를 위한 준비기간만 아니라 메이지시대 발전의 촉매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한국은 일찍이 중앙집권형 국가가 되면서 봉건제가 부재한 사회였다. 그것은 외부 충격이 없다면 절대로 근대화할 수 없는 체제로 해석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미국사회가 봉건제가 없었다는 점이 근대사회의 성립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매우 대조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는 “근대화론”의 역사적 부분이 유럽과 일본의 모델을 절대화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46) Gregory Henderson, “Centralization and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in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309-320.

47) 라이샤위의 일본 근대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앞의 안종철 (2013)을 참고.

3.2. 조선시대 신분제와 신분 이동성의 문제

근대로의 전환에서 전통사회의 “근대화”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경향, 혹은 중요한 발전의 싹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의 연구경향의 전환을 들 수 있다. 특히 서구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전근대 사회에서의 신분제가 귀속주의(ascriptive)냐 능력주의(meritorious)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조선시대의 사회구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중시했는데 조선시대의 양반이 귀속주의적인 귀족이냐 아니면 능력주의가 관철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⁴⁸⁾

구미의 학자들 중 한국의 양반이 몇 대를 걸쳐서 과거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다면 양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시험의 폐해도 있었지만 시험을 통해서 능력주의가 일부 관철됨으로써 그것이 근대화에 일부 도움이 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⁴⁹⁾ 신분상승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것이 아닌 은밀한 형태의 상승(covert mobility)이 있었다는 것에 학자들은 집중을 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인식은 동양사학자인 고병익의 경우에 보듯이 한국의 양반제도는 과거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세습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⁵⁰⁾ 그는 19세기의 경직된 신분제의 구축에 대비적으로 19세기 말에 약간의 신분이동이 있었고 특히 3.1운동에 양반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이후 신분제가 없

48) William E. Henthron (1966), “Traditional Korea and Modernization-Some Implications of traditional Concepts,” in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229-238. 윌리엄 헨스론은 인디애나 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William E. Henthron (1971), *A History of Korea*, New York: The Free Press는 대표작. 이 책은 직전에 번역된 Takashi Hatata (1969), *A History of Korea*, Santa Barbara, CA: ABC Clío와 함께 70년대까지 거의 유일한 영미권의 학문적 한국사 개론서였다. 하타타의 책은 『동양문화사』의 한국관련 집필에서 활용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중철(2013), pp. 316-318 참고.

49) William E. Henthron (1966), p. 240.

50)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 239에 있는 고병익의 발언.

어졌다고 보았다.⁵¹⁾

이와는 별도로 학자들이 보기에 조선사회는 양반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당연히 조선사회의 봉건성, 특히 파당성과 당쟁 등에 대한 폐해가 늘어났다. 족보를 중시하는 가족윤리 등을 조선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3.3. “실학”에 대한 관심

조선조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선후기에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발견과 의미부여를 들 수 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930년대부터 내려온 “실학”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주자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별도로 “실질”을 숭상한다는 면에서 한국 측 학자들은 “실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물론 이는 1960년대 “근대화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인 1950년대 중후반부터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였는데 이는 “근대화론”과 별도로 한국민족주의와 내재적 발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병도, 한우근, 이광린, 홍이섭 등 한국의 역사학자들 대부분은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았다. 물론 서구 학자 중에도 실학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⁵²⁾ 하지만 실학연구에서 실학이 마치 주자학을 벗어난 새로운 학문인 것처럼 다루어지기도 했다. 즉 주자학 전통하에 있는 “실학”이라는 인식의 확립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한편 실학과는 별도로 한국 전통사회의 샤머니즘, 불교, 유교, 혹은 천도교나 천주교 등이 가진 역할, 특히 미래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51) Koh Byong-ik (1966), “The Role of the Westerners Employ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Late Yi Dynasty,” in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 260
에 있는 고병익의 발언.

52) William E. Henthron (1966), pp. 240-241.

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전통 사상이 “근대화”의 비인간성에 대한 보충적인 효용성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⁵³⁾ 특히 근대화의 폐해가 개인의 가치가 실종되고 도덕성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 보완적 의미를 들 수 있다. 물론 때로는 불교나 유교에 있는 철학적 요소를 들면서 단순히 보완적 의미가 아니라 근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산업화를 기초로 하는 “근대화”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지를 보내면서, 근대화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전통사상이 가지는 보완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근대화론”이 가진 보편성에 대한 믿음과는 별도로, 한국 전통사상의 독자성이 근대화의 폐해를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학자들의 “근대화론”에 대해 보여준 독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3.4. 개항기 근대화 문제

전통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근대사회, 특히 서구사회와 조우한 19세기 말 한국의 입장이 어떠했는가는 중요한 질문이다. 특히 개항기에 자체적인 근대화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당시 모든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였다. 그런 관점에서 “통리기무아문”(1881)이라든가⁵⁴⁾, 개화기 외국인 고문의 활동과 신분제의 변동⁵⁵⁾, 독

53) 이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 개교 60주년기념 학술 심포지움 위원회(1967), pp. 379-457에 있는 제2분과 토론문 참고.

54) 통리기무아문에 대해서는 Chun Hae-jong (1966),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Tongni Amun and Its Significances in Modernization,” in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199-205.

55) Lee Kwang-rin (1966), “The Role of Foreign Military Instructors in the Later Period of the Yi Dynasty” and Koh Byong-ik, “The Role of the Westerners Employ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Late Yi Dynasty,” in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241-248, 249-257.

립협회(1895-1899) 등에 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독립협회에 대한 평가는 그 의의를 부여하면서도 서울이나 일부 도시에 국한된 현상이었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오히려 그레고리 헨더슨은 독립협회 일부 인사들이 이용구와 송병준이 세웠던 일진회에 합류한다는 것과 일진회가 전국적인 조직이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일진회를 최초의 “근대 대중조직”으로 보기도 했다.⁵⁶⁾ 그러나 여전히 개항기 중요기관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연구는 일반적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즉 전반적으로 한국 개항기의 정부나 민간의 움직임에 일부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간간히 실증적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지만 여전히 자료의 한계와 인식론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개항기 독자적인 근대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대세였다. 그러나 적어도 1960-70년대, 19세기 개항기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했다는 점은 “근대화론”이 한국사에서 가진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3.5.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인식

만약 조선후기, 특히 개항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면 통감부부터 식민지시기(1905-1945)에 대한 “근대화”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려대 국제학술학회에 참여한 일본 학자는 일본의 식민지가 폭력이 있었고 그 폭력은 모든 근대화에 수반되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식민지하에서의 근대화의 불가피성을 제기했다.⁵⁷⁾ 이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당시에 거의 없었다. 한국의 이선근의 입장에 많은 이들이 동의했다. 그는 식민지시기가 가진 문제점을 다루면서 식민주의

56)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 240에 있는 그레고리 헨더슨의 발언을 참고. 그는 “이러한 중앙집권주의라는 소용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7) Kentaro Hayashi (1966), “Tradition and Modernization in Japan,” in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261-270.

는 한국인들을 억압하는 체제였음을 주장했다.⁵⁸⁾ 이에 구미의 일본사 연구자들도 제국주의 문제는 나라별로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선근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⁵⁹⁾ 또한 근대화의 일반적인 모범으로 간주된 일본의 경우도 근대화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며 한국의 경우는 특히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보았다.⁶⁰⁾ 이는 근대화론의 비용, 즉 어두운 면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근대화론” 연구자들, 특히 구미 심리학연구자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이들 두 회의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바로 1967-68년에 있었던 한국 내 역사학자들의 시기구분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사학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근대 기점과 근대사회의 특징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당대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이 논쟁에 참여했다.⁶¹⁾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근대화”에 대해서 산업화의 씨앗이라든가(경제적), 의회제도의 단초(정치적), 그리고 신분제 폐지로의 출발(사회적) 등의 관점에서 최소한 개항기가 그 출발점으로 보는데 대부분이 동의했던 것이다. 과연 한 사회의 시대구분을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엄격한 요소들을 대입해서 한 사회의 변화성을 충분히 개진하면서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해 엄정한 개념정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몇 가지 단초들이 시대를 구분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58) Lee Sun-keun (1966), “The Extent to Which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toward Korea Contributed to her Modernization,” in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p. 323-337.

59)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 338에 있는 Marius Jansen (프린스턴 대학교)의 발언.

60)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p. 337에 있는 James W. Morley (콜럼비아 대학교)의 발언.

61) 김경태(1993), 『한국근대사의 기점과 시기구분문제』, 『국사관논총』 50집, p. 98. 한편 이 학회의 토론 결과는 韓國經濟史學會 편(1970), 『韓國史時代區分論』, 서울: 乙酉文化社로 출간되었다.

학자들은 “근대화” 혹은 “근대사회”의 기점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개진했는데, 18세기 후반의 자본주의 맹아를 기점으로 영정조시대를 근대의 기점(유원동)으로 보거나, 1876년 개항을 중심으로 보거나(조기준), 동학과 대원군의 개혁(1860년대), 1860년대부터 1876년을 함께 묶어서 보면서도 1880년대 정부주도의 개혁을 높게 평가하는 시각(김경태), 갑신정변(1884)이라는 정치변혁을 중심에 두거나(신용하), 노예제폐지와 토지, 화폐제도 개혁을 가져온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보는(천관우) 입장, 혹은 영·정조시대부터 1894년 갑오경장을 과도기로 보는 입장(이용희) 등의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었다.⁶²⁾ 근대의 시작점과 함께 근대사를 1945년 정도에 마무리짓고 이후를 현대사, 혹은 과도기로 보는 입장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한국사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시대구분이다.⁶³⁾ 이러한 입장들은 당시 한국학계가 가지고 있었던 내재적 발전론이 근대화론과 접목하면서 근대화 혹은 근대시기를 규정하는 문제와 수렴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한편 시대구분론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1990년대초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다시 1990년대에 시대구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서들이 1990년대까지 꾸준히 출판되었다.⁶⁴⁾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업적은 대체로 1970-80년대 나온 것들이고, 시대구분론 자체에 대한 정리가 1990년대 초에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1990년대까지 “근대화론”에 의해 촉발된 시대구분의 문제가 한국사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제였다고 볼 수 있다.

62) 김경태(1993), pp. 99-100.

63) 김경태(1993), p. 110.

64) 韓國經濟史學會(1970); 국사편찬위원회(1993), 『국사관논총50－한국사 시대구분의 제문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3; 단국대한국학연구소(1994), 『한국학연구 제1집－한국학의 시대구분』, 서울: 단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정신문화연구원 편(1995),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관한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 차하순·이기동 외(1995), 『한국사시대구분론』, 서울: 소하.

4. 결론

이 연구는 “근대화론”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과 변용을 다루면서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첫째는 “근대화론” 자체에 대한 연구이고 둘째는 “근대화론”의 한국사에서의 적용과 수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이를 두 시기로 나누자면 1960년대 “근대화론”의 전성기인 시기에 대한 구미사회의 자기인식과 아시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수용을 고려대와 동국대 학회를 통해서 보았다. “근대화론”에 입각한 중국사와 일본사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별개로 한국사에서의 “근대화론”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아직도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국사, 특히 근대사 연구 중 최소한 1990년대 초까지의 업적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구미에서 “근대화론”이 한풀 꺾이는 1970년대 이후의 한국사 관련 연구는 구미권과 달리 여전히 발전사관에 입각한 인식틀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이 이론이 한국에서 가진 강고한 힘을 볼 수 있다. 특히 “근대화론”은 해방 후 근대 민족주의의 역사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이론과 한국사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면 최근까지의 한국 역사 학계를 성찰적으로 살펴보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론”의 문제는 서구 사회를 준거점으로 두고 제3세계, 혹은 저개발국가(최근의 “Global South”)가 나가야 할 보편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발전과 거기에 조용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면 전근대와 근대를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근대사가 근대에 대해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지점들을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전근대사에 있는 근대적 특성을 다루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⁶⁵⁾ 또한 식민주의의 역사학은 근대역사학으로서 근대주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어 왔는데, “근대화론”이 변용된 식민주의 역사학인지 여부와 별도로, “근대화론”이 식민주의 역사학을 포섭하는 지점이라든가 한국역사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⁶⁵⁾

이 글은 고려대와 동국대에서 1965년과 1966년에 각각 열린 학회의 결과물을 분석함으로써 “근대화론”과 한국사의 만남을 이해해보려고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식의 연장, 변용, 적용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론”의 몇 가지 특징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통상적인 산업화의 사회적 전제에 더해, 지도적인 엘리트의 형성, 이익집단의 형성, 서구사회와의 접촉 등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모두 다 “근대화론”으로 수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근대화론”의 문제의식은 전근대 사회에서의 사회변동에 대한 논리, 엘리트의 특징들, 새로운 사상에 대한 관심 등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양반의 구성과 신분이동성, 그리고 실학에 대한 관심, 개화기 문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식민지시기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점에서 한국과 영미권 학자들의 공동 논의는 향후 연구를 촉진함과 더불어 연구의 의제설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근대화론”에 대한 한국의 수용 및 변용사는 중요한 문제

65)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최근의 새로운 모색에 대해서는 배향섭(2015), 『동아시아 연구의 시각: 서구·근대 중심주의 비판과 극복』,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미야지마 히로시·배향섭 엮음), 서울: 너머 북스를 참고할 것.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는 한국에서 토지소유와 관련해서 일찍부터 “소농사회론”을 통한 토지소유의 확보, 그리고 과거제를 통한 일정한 능력주의 등이 전근대사회에서 강력했다는 점을 주장해왔는데, 이는 결국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적” 특징을 간파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2002), 『내가 보는 조선후기상과 토지조사사업』, 『역사비평』 60호, pp. 193-213 참고.

66) 윤해동(2016),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시론』,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탈식민주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윤해동·이성시 엮음), 서울: 책과 함께를 참고.

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과연 근대화론이 한국에 보다 강력히 자리잡기 전에 있었던 연구경향과 이후의 연구들을 충분히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한국사 연구의 “근대화론” 수용과 변용은 여전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한 예를 들면 1960년대 논의된 한국의 “근대화론” 이해, 혹은 변용은 산업화론 이외에도, 정신문명에서 한국적 사상의 특징이나 물질문명과 구분된 문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구미사회의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와 그 수용 및 해석사는 해방 후 한국사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방법론임에는 틀림이 없다. 즉 “근대화론”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그 유산은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하는 점은 오늘날 한국사학을 이해하는데 긴요한 문제의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무의식적인 서구 근대 경험을 준거로 하는 각종 발전론에 기초한 한국사회 이해에 대해 성찰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태(1993), 『韓國近代史의 起點과 時期區分問題』, 『국사관논총』 50집.
- 김우민(2007), 『근대화이론과 미국의 지식인들』, 『서양사학연구』 16.
- 동국대학교 개교 60주년기념 학술 심포지움 위원회(1967), 『한국근대화의 이념과 방향』, 동국대학교.
- 미야지마 히로시·배항섭 엮음(2015), 『동아시아는 몇 시인가?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 박진우(2002), 『일본 근대화론의 이론적 검토』, 『일어일문학연구』 43.
- 박태균(2004), 『로스토크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
- 백영서(2014), 『사회인문학의 길-제도로서의 학문, 운동으로서의 학문』, 창비.
- 신주백(2014), 『관점과 태도로서 ‘內在的 發展’의 분화와 民衆的 民族主義 歷史學의 등장-民衆의 再認識과 分斷의 發見을 중심으로』, 『東方學誌』 165.
- 신주백(2016), 『한국역사학의 기원-근현대 역사학의 제도·주체·인식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휴머니스트.
- 안종철(2013),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 『역사문제연구』 29.
- 윤해동·이성시 엮음(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탈식민주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 책과 함께.
- 이상록(2007),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사문제연구』 18.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2013), 『동아시아한국학의 분화와 계보-복수의 한국학들』, 소명출판.
- 정문상(2014), 『포드재단과 동아시아 ‘냉전지식’』, 『아시아문화연구』 36.
- 정일준(2005), 『한국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미국화-미국 근대화론의 한국전파와 한국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7-3.
- _____ (2003), 『미제국의 제3세계 통치와 근대화이론』, 『경제와 사회』 57.
- 황병주(2009),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21.
-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2003), 『우리 학문 속의 미국-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울 아카데미.

- 허은(2008),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냉전시대(1945-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_____(2007), 「1960년대 후반 ‘조국근대화’ 이데올로기 주조와 담당 지식인의 인식」, 『史學研究』 86.
- 홍석률(2002),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두 흐름」, 『사회와 역사』 62.
- Asiatic Research Center ed. (196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Asia, June 28-July 7, 1965 Report,” Asia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 Cumings, Bruce (2002), “Boundary Displacement: The State, the Foundations, and Area Studie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in *Learning Places: The Afterlives of Area Studies*. (eds. by Masao Miyoshi and H. D. Harootunian),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Eckert, Carter J. (1991),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Ekbladh, David (2010), *The Great American Mission: Modern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n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lman, Nils (2003), *Mandarins of the Future: Modernization Theory in Cold War America*.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lais, James (1975),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7년 4월 18일

심사 완료일: 2017년 5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3일

Abstract

‘Modernization Theory’ and
Korean Historiography in the 1960s:
With Focus on the Conferences of Korea University and
Dongguk University

An, Jong-Chol*

‘Modernization theory’ which was introduced into Korea in the 1960s consists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dimensions. Based on the position that all societies are able to make the leap to modern society, this theory aimed to seek a universal framework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entire world, regardless of the specific situation of each society. This theory was viral and popular in Korea in the 1960s.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theory and studies on Korean history, an area tha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scholars. In Korea, modernization theory was widely discussed at two important conferences: the 60th Anniversary of School Founding Conference in Korea University (1965) and Dongguk University (1966). Particularly, several modernization theorists from western societie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t

* Junior Professor in Department of Chinese and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uebingen, Germany.

Korea University. Through the diverse exchanges of opinions that took place, the conference illuminated both the common ground and differences between western scholars and their Korean counterparts. After these conferences took place, the theory came to be projected into Korean discourse on periodization in Korean historiography. Debate centered on identifying the impetus of modern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history, which would allow a recognition of the internal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In other words, the debate was a internalization of the modernization theory. It is therefore argued that modern Korean historiography can be better understood by examin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odernization theory’ and Korean history research.